

‘제3국’ 민 한센인의 차별 서사 연구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생활수기를 중심으로-

오현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목 차》

1. 들어가며
2.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 생활수기와 그 의미
3.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와 호조상애(互助相愛)의 굴레
4. 아픈 신체와 ‘제3국’ 민의 발견
5. 나오며

<Abstract>

Oh, hyoun-suk. 2022. 2. 20. **A Study of Discrimination's narration in stateless Hansen's people -Focusing on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s essa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0, 129-15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ssays of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and to identify the discrimination they suffered. The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are Korean people who have taken roo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developed Hansen's disease in Japan. In particular, the term Korean or Chosun is implied in the meaning of following South Korea or North Korea, so this paper intends to use the term Zainichi Korean.

The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published their first and second book in 1961 and 1962; these books were published in 1986 as “remote islands” in Korea. The book contains the life of a living in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in Japanese Hansen camp. In the 1950s,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were excluded from the pension system due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ct in Japan, This is because the nationality of Zainichi Korean was not Japanese. In addition,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often maintained their nationality, not South Korean nationality or North Korean nationality. However, because the country of Joseon was already a country that disappeared from the earth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were close to an non-national.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mean to protect the existence of the non-nationals or to give pensions.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ct in Japan was an opportunity for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to reimprint their nationality.

In the Japanese Hansen camps, discrimination against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worked in a more covert way. On the surface, all Hansen’s people accepted under the principle of a good love affair were equal. Like other East Asian countries, Japan’s Hansen policies were centered on isolation and exclusion, so Hansen people’s sanatorium were forced to help each other. However, when the problem occurred, discrimination against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became a surface.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lived as Hansen and living a life as a colonial people who were discriminated against.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Third people, Hansen’s people, discrimination, a good love affair[互助相愛]

1. 들어가며

2016년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 한센인에게 가해졌던 억압과 인권 탄압에 대한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최근 한센인과 한센병에 대한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¹⁾이다. 특히 한센병 문학 연구는 기존에 잘 알려진 시인 한하운의 시집이나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매체를 발굴하거나 이름 없는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²⁾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센병 관리와 거주 방식에서 격리와 단절이 지나는 다양한 층위의 의미가 해석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한국과 대만, 일본, 필리핀 등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현대 한센병 정책의 기조로 강제 격리와 단종(斷種)이라는 우생학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한센인수용소, 요양소, 한센인 집단 거주 지역은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한센인들은 이동이나 거주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끼리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처절한 목소리는 밖으로 표출될 수 없었고 그 속에서 발화되고 소모되고 소멸해갔다. 한센병 관련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지만 다행히도 그들 집단 내에서 발행되거나 사용되었던 자료들은 그나마 보존

-
- 1) 과거에는 의학, 사회학적 한센병 연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문학, 지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2) 김귀분(2019). 제일한국인 한센병환자회복자의 인생과 역사: 가인 김하일의 단카 작품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4-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7쪽~50쪽.; 니시무라 미네타쓰(2019). 한센병문학과 오키나와, <횡단인문학> 4-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51쪽~76쪽.; 오현석(2017).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 - 한센병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1쪽~134쪽.; 한순미(2020). “달과 별이 없어도 밝은 밤” : 한센병의 감각과 증언, <구보학보> 26, 구보학회. 475쪽~503쪽.

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절된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수십 년간 요양소에 거주한 장기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 발화되지 못한 한센인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직접 쓴 문학작품과 여러 형태의 글 속에서 은밀하게 스며들었다. 또 내부적으로 발행된 여러 한센인 관련 매체들의 경우에는 그 매체가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이 제한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삶을 자기검열 없이 좀 더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매체들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한센인들의 삶의 의식과 이야기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한센인 문학 연구에 있어서 체험당사자에 의해 발생된 진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 역시 한센인들이 직접 내뱉는 말의 무게를 한센인 생활수기집을 통해서 가늠해보고자 한다.

한센인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핍박받은 존재였다. 국가의 폭압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인간의 근원적 존엄성까지 흔들렸던 한센인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마이너리티의 영역에서도 가장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 이유는 연구자와 독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편화된 언어와 다층적 표현 속에 녹아 있는 의미를 쉽게 단정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도 동일하다. 당사자라 하더라도 각 주체의 상황과 생각은 모두 다르다. 즉, “당사자성의 내부의 차이와 균열은 필연”³⁾적이다. 예를 들면 본 논문에서 다룬 한센병 환자의 서사도 매우 다양한 결을 지닌다. 한반도 거주

3) 이지형(2016). 일본 한센병문학의 의의와 현재성-호조 다미오의 『생명의 초야』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25,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83쪽.; 박형준(2021).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49쪽~73쪽.

조선인 환자, 한반도 거주 일본인 환자, 일본 거주 일본인 환자, 일본 거주 조선인 환자 등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들에 대한 접근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당사자성’에 핵심이 있다. 즉, 당사자는 될 수 없지만 당사자성을 통해서 당사자의 고통과 배제, 차별을 성찰하여 동일화할 수 없다는 “공약불가능성”⁴⁾을 인정하고 그 간극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새로운 공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목소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끊임없이 연구자의 시선에 공감의 허점을 인정하면서 공감으로 나아가야 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는 식민지 시대 식민지 조선인의 아픈 일면이다. 복합적 마이너리티 요소를 지닌 이들 존재의 발화는 때로는 한센인으로서, 때로는 조선인으로서, 또 때로는 식민지인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목소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놓여 있는 자리와 시간까지 고려한 촘촘한 거름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다룬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 생활수기⁵⁾는 일본에

-
- 4) 위의 논문, 87쪽. 이지형은 비당사자의 공감은 근원적으로 동일화가 불가능함이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마이너리티 연구에서 공감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 5)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생활수기는 1961년과 1962년에 간행된 『孤島』 1, 2집이 있다. 이 책은 1965년 4월 한국의 한센병 권위자 유준 박사에게 전해졌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5년 4월 일본 동경에서 <제3차 범태평양 지체부자유자 재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나(癩)분과학회에 당시 한국의 한센병 권위자이자 한센병 잡지 『새빛』의 발행인(편집인)인 유준 박사가 참석하였다. 유준 박사는 회의 참석 후 일본의 나병요양소인 장도에생원과 오쿠광명원 등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조선인 한센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발간한 수기집 『고도(孤島)』를 유준 박사에게 전했다. 유준 박사는 귀국 후 본인이 발간하는 『새빛』에 1965년 6월호부터 ‘재일교포 환자의 생활기록’이라는 꼭지를 만들어 『고도』에 수록되었던 수기들 중 일부를 전재(全載)했다. 두 권의 수기집은 20여 년이 지난 후 1986년에 한국에

서 발간되었던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생활기록집인 『孤島』 1집(1961, 오꾸광명원 한국인호조회)과 2집(1962, 한국인 한센병요양자의 생활을 지키는 회)을 모아 한국에서 간행한 『외딴 섬-孤島』(고려출판사 1986)⁶⁾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순미, 오현석⁷⁾ 등에 의해서 한센병 관련 매체에 수록된 한국 한센인들의 수기는 일부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먼저 한센병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적었으며, 일본의 한센병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일본인 한센병 문학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는 그 속에서도 망각된 존재였다. 최근에 와서 일본국립한센병자료관 학예사인 김귀분의 연구⁸⁾와 한순미의 연구⁹⁾가 시발점이 되고 있다. 특히 한순미는 본 논문에서 다룬 한센인 수기 중에 『새빛』에 재수록된 몇몇 텍스트를 바탕으로 당시 “국민이면서 국민이 아닌 존재, 혹은 국민이 아니면서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¹⁰⁾에 놓여있었던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조선인이자 한센인으로서 차별과 배제의 경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¹¹⁾라는 의미로 읽히는 생활수기를 앞서 제시한 ‘당사자성’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서 『외딴 섬-孤島』(고려출판사)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발간되었다. 유준(1965.9). 「일본의 나병을 보고」, <새빛> 3권9호, 새빛사. 12쪽.

6) 이석형·조성규 편역(1986). 외딴 섬-孤島: 제일한국인환자들의 생활수기. 고려출판사.

7) 한순미(2014). 한센인의 삶과 역사, 그 증언 (불)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14-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25쪽~157쪽.; 한순미(2020). 앞의 논문.; 오현석(2017). 앞의 논문.

8) 김귀분(2019). 앞의 논문.

9) 한순미(2020). 비/국민의 차별과 배제-제일한센인의 수기와 한일 요양소 기행,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535쪽~570쪽.

10) 한순미. 위의 논문. 556쪽.

11) 한순미. 위의 논문. 같은 쪽.

유연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차별과 억압의 굴레에 갇혀 있던 한센인들의 삶을 연구자가 오롯이 동일시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에 감응하고 호응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수기를 다시 읽기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孤島』가 발행되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태평양전쟁 이전 일본의 한센병 정책과 요양소 등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대상에 넣어 그들의 목소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재일 조선인 한센병 환자 생활수기와 그 의미

먼저 2장에서는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재일 조선인 한센병 환자라는 용어를 살피면서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 용어에는 매우 다양한 가치판단이 얽혀 있다. 『외딴 섬 -孤島』의 등표지에는 ‘재일한국인나환자들의 생활수기’로 표시가 되어있고, 또 다른 한센인 수기집인 『형극의 반생기』¹²⁾에는 ‘재일교포 환우수기’로 표기되어 있다. 재일 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교포라는 각각의 용어는 분명 같은 존재를 지칭하고 있지만 다른 존재로 구분하고 있다. ‘재일’이라는 동일한 부분에 대한 함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국적 외의 외국인들을 일본 외부에서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조선인, 한국인, 교포의 범주와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본 논문 제목으로 설정한 ‘재일조선인’이 현재 의미하는 범주와 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용어설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¹³⁾ 조선인은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12) 川野順(1975). 신정식 역. 형극의 반생기. 삼일각.

13) 이러한 용어의 선택은 재일조선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면 항상 고민

살았던 한반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단독정부 수립으로 공식적으로 한반도 내 조선인들은 한국 국민 또는 북한 국민이 되었다. 그런데 해방 후 한반도 밖에서 한반도로 돌아오지 않았(못했)던 존재들에게 그들의 조국이었던 조선은 증발해 버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반도로 귀국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조선의 몰락-식민지-분단국가 형성이라는 한반도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조선인으로 남게 되었다. 그들의 자의적 선택이었던 타의에 의한 귀국 불가였든 간에 그들의 조국 조선은 역사에서 소멸했다. 본 연구의 제목을 재일 조선인으로 선택한 것은 재일 한센병 환자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도일(渡日)했거나 조선인 부모들이 도일 후 일본에서 출생한 2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인으로서의 한센병 투병을 이어간 이들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대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정작 본 논문에서 다룰 두 권의 수기는 왜 재일교포와 재일한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가?

이 두 권의 환자 수기는 단순히 한센인 환자들의 자기 생활상을 기록한 기록집으로서 발간된 것이 아니다. 이 두 권은 당시 일본 내에 한반도 출신 한센인들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사상적, 정치적 태도가 표출된 결과물이었으며, 또 일본 사회와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재일조선인들의 투쟁 의지를 보여준 저항의 상징이었다. 그 이유는 이 두 권의 책이 일본 내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조선인과 북한을 옹호하는 조선인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드러난 균열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문제이다. 연구의 정체성을 어떻게 잘 드러나도록 용어를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재일조선인은 학술적 용어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환기하는 정치적, 사상적 선입견이 작동하는 문제적 용어이다. 송혜원(2019),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명출판. 5~6쪽. 송혜원은 이 책에서는 재일조선인을 국적,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일본 식민지배에 기인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한일회담 그 자체에 대한 견해, 평가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두 세력 간의 대립은 마침내 일부 인사들의 호조회 탈퇴, 조선인 동향회(同鄉會) 결성으로 번져 나간 것이다.¹⁴⁾

지난 3월 3일, 호조회는 마침내 해산되고 말았다. 이튿날 밤,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 대한민국인 호조회를 결성했다. 국민연금문제는 동포 간에 술한 대립과 분쟁의 씨를 심어 놓았다. (외판 섬, 92~93쪽)

동포들은 한국인과 조선인¹⁵⁾으로 갈라졌지만 우리 사이에 이해관계에 얽힌 근본적인 대립이란 있을 수도 없다. 인젠가는 다시 대화를 하고 예전처럼 통일이 되리라고 믿는다. 조국의 부자연스러운 분단이 이 조그만 섬에까지 번져 온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한량없이 아프기만 하다. (외판 섬, 93쪽)

위의 인용에서와 같이 일본 한센인 요양소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1950년대~1960년대 서로의 가치 지향에 따라 남한과 북한을 선택해야할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그들에게는 조국이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안 없는 선택이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서로에게 생채기를 냈듯이 일본의 한센인 요양소 안에서도 조선인들에게 사상의 대립이 스며들었다. 격리되어 있는 한센인들에게 사상에 따른 선택은 그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원조의 기준이 되었다.

인용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열 없이 유지되었던 호조회가 1950년대 한일회담과 1959년 일본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때문에 조선인 동향회, 대한민국인 호조회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 단체가 분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른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일본 내 지지 세력을 확보

14) 이석형·조성규 편역, 앞의 책, 92쪽.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한 부분은 표제와 쪽수로 표기함.

15) 인용문의 조선인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의미는 북한을 지향하는 재일조선인 한센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모든 한반도 사람을 조선인으로 지칭한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할 목적으로 당시 남북의 소리 없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선택도 있지만 차후 국적 선택, 한반도 복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평생 일본 한센인 요양소에서 삶을 살아온 이들이지만 그들에게 조국으로의 귀국은 포기할 수 없는 향수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당시 일본 내 조선인들은 이미 민단(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과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련협회)로 나뉘어 서로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갈등하고 있었다. 조선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뉘자 재일조선인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 끝을 선택했지만 양 극단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조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실제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조선을 포기하지 못하고 무국적의 상징인 조선적(朝鮮籍)을 유지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 역시 역사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서게 되면서 그들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재일한국인 한센병요양자의 생활기록집 『孤島』 제1집은 1961년 오꾸광명원(邑久光明園)한국인호조회가, 그리고 제2집은 62년 「한국인 한센병요양자의 생활을 지키는 회」가 각각 발행했습니다. (외딴 섬, 281쪽)

매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있으면서 좌경하는 풍조이다. (...중략...) 각 요양원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조직체 활동이란 게 조총련(朝總聯)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투쟁적인 증견간부들 가운데 알짜들은 조총련 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외딴 섬, 259쪽)

『외딴 섬』은 원래 위의 인용문 설명과 같이 『孤島』로 오꾸광명원 환자들이 주축이 되어 1960년대 초반 발간했던 매체이다. 당시 오꾸광명원과 장도에생원에는 300여명의 조선인 환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책 발간을 주도했던 ‘한국인호조회’와 ‘한국인 한센병요양자의 생활을 지키는 회’ 두 단체 모두 단체명에 나타나듯이

한국 쪽으로 가까이 있는 단체였다. 그래서 민단, 대한기독교총회 등과 교류하면서 매체 발간에 도움을 받았다.

당시 한국인호조회 등 단체는 이전 환자 모임이나 단체가 좌경화된 조총련 중심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센인 북송(北送)과 국민연금법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노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열과 대립이 결코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으로서의 삶과 요양소 내에서 조선인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하는 그들이 겪는 이중 마이너리티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끼리 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요양소 내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평생 조선인, 일본인 할 것 없이 요양소에서 유지해온 호조상애(互助相愛)의 정신을 깨지 않으려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외딴 섬』의 발간은 당시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사상적 투쟁과 삶의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목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일한국인과 제일동포라는 용어의 사용은 이를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한국인/동포/조선인의 선택적 사용은 요양소 안에 적을 두고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이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시위 또는 저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孤島』 발간을 통해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일본 정부와 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고자 했다. 『孤島』의 공식적인 목적은 1959년 일본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이 차별받게 되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고자 했던 것에 있다. 당시 이 법의 시행으로 일본 국적 한센인들은 연금대상자가 되었지만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즉, 연금 지급이 거부된 이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서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조국에 이리

한 그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한 목적이 이 책에 담겨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서 밝히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매체 발간 배경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 문집에 수록된 생활의 냄새, 행간에 넘쳐 흐르는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한국인 요양자들의 실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삶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을 넓히고 깊이 하여야 하겠다. 마침 장애복지연금 지급에 따라 외국인 요우들 가운데 중환자 처우의 문제가 제기되어 한센병환자의 통일운동으로서 특별한 조치를 관계당국에 진정중인 이때에 있어서라.¹⁶⁾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되면서 한센인 요양소 입소자들 중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이 제도의 시행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요양소의 삶에서 경제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필요가 없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소자들의 요양소 삶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사람마다 기호와 생활방식,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달랐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취사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요양소 한센인들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특히 중등 장애도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부자유료에서 평생을 지내야했는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소의 일률적 지원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연금)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12월 15일

부자유자 위로금 650엔을 받다. 지난 5일에 탄 요양자 위로금 500엔은 어디다 썼는지 흔적도 없이 거의 남은 게 없다. 한 달을 1,500엔으로 꾸려나가야만 하는데 벌써 500엔 가까운 돈을 잡지출로 써 버렸구나. (...중략...) 지체 부자유한 탓으로 늘 이것저것 신세를 진 이

16) 望月拓郎(1961). 序, <외딴 섬>. 고려출판사.

사람 저 사람에게 조그만 사례나마 하고 싶은데, 담배값이나 가지고 때운다 쳐도 셋이니 600엔은 있어야 한다. (외판 심, 207쪽)

광명원에 입소해 있는 조선인 한센인의 지출내용이다. 그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서 부자유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매달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부자유료 병실에 환자를 보조해주는 이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담배값이나 마련하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넉넉하지 않다. 그의 행동이 사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양소에서 의식주가 제공되지만 국민/비국민 이전에 그 공백을 채우는 인간다움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을 보조해주는 이들에게 작은 고마움을 표시할 여유조차 없는, 인간적 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지원금은 중증장애를 지닌 한센인들에게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의 설계가 가능한 기회였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연금법에서 제외된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소외를 외부로 알리고 부당함을 일본 정부에 문제제기하기 위해 『孤島』를 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3.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와 호조상애(互助相愛)의 굴레

근·현대 한센인의 삶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고향과 가족 상실, 타자화의 과정을 거쳐 요양소에 격리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한센병사는 제국주의 일본의 자장(磁場) 안에서 우생학에 근거한 격리정책¹⁷⁾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가 주도 정책과 차별 의식이 동반되었다. 패배한 신체인 한센인은 “세계를 재패할 문명국 일본에게는 국격에 맞지 않는 ‘국가의 치욕’

17) 이지형(2017). 우생학, 한센병 그리고 한센병소설-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역서적 신체의 문학표상, <비교일본학> 39,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 비교연구소. 290쪽.

으로 간주” 18)되었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멀어지도록 산 속이나 섬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들의 격리는 무라현운동(無癩県運動)¹⁹⁾으로 정당성을 얻었다. 민관합동의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고 일등 국민이 존재해야하는 일본에 필요한 당연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한센인의 입장에서는 타자화 과정에서 2등(국민)인이라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고통의 자리가 되었다. 게다가 요양소에서 그들은 또다시 타자동일시를 통한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경증자나 무증상자의 경우 일반인들이 한센인을 접하는 공포와 다른 또 다른 공포를 같은 한센인을 통해 느끼게 된다. 타자를 통한 나의 발견은 한층 더 고통스럽게 타자화된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절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제아무리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다 해도 필경은 한 남자며 한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선 노상 위엄을 부리던 이도 여기선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곳은 오쿠광명원(邑久光明園)이라고 하는, 부모형제나 친척의 그 어떤 힘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의 격리된 사회입니다. (외딴 섬, 137쪽)

좀 전에 밥을 가져다 준 그 아줌마의 시커멓게 때에 절은 붕대하며, 군데군데 고름이 번져서 누리끼한 자죽과, 거거서 배어 나오는 형용키 어려운 냄새 따위가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며 같은 처지에 놓인 나로서 그 중증자(重症者)를 혐오한다는 것부터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태도임은 너무도 잘 알면서, 내 감정은 들쭉날쭉 엉망이었습니다. (외딴 섬, 115쪽)

곧 입원~경증료~부자유료에 이르는 코스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빼

18) 강태웅(2021). 전전 일본의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과 국책영화 <작은 섬의 봄>, <일본역사연구> 54, 일본사학회. 186쪽.

19) 김재형·오하나(2019).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사회와 역사> 121, 한국사회사학회. 300쪽. 무라현운동은 한센병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다. 이는 한센인의 감금, 단종 등 비인권적인 통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민관합동의 상호협조 움직임이었다.

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판 섬, 50쪽)

한센인 요양소는 현실적으로 글자 그대로 ‘요양’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한센인 정책을 고려했을 때 한센인 보호소(한센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나 수용소로 보아야 적절하다. 한센인들은 모두가 1차적으로 사회에서 타자화된 한센병을 지니고 있는 열성 존재였기 때문에 출신, 경제력, 지위 등 외부적 조건은 그들을 규정하고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없었다. 한센병 요양소는 “어떤 힘도 미치지 못하는” 철용성이었다.

요양소에 입소한 한센인들은 멸시와 차별, 비난의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감이 아니었다. 요양소 중증자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자신이 한센병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를 혐오한다. 하지만 곧바로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자각하고 입소자들은 더 큰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한 자각은 경증자로 요양소에 입소한 이들에게 “한센병 환자의 그로테스크한 신체는 상상을 넘어선 참혹함과 충격으로 다가오며 낮선 ‘타자’의 신체”²⁰⁾를 주체로 오버랩하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적으로는 입원-경증료-부자유료로 이어지는 미래를 확인하고, 훼손된 신체의 종착점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론적 당위성을 인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한센인들은 요양소 입소 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타인의 현실이 다시 나의 미래로 환원되면서 더 이상 삶의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음을 대면하고 결국 제도에 순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도가 바로 호조상애(互助相愛)이다. 호조상애는 글자 그대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센인 요양소의 암묵적 제도이자 정신은 한센인 요양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20) 위의 논문, 88쪽.

이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생활이 부자유스럽다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부상조의 정신과 그것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자기희생정신이 이곳 요양소를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간호원이며 세끼모도를 둔 것부터가 그러합니다. (외딴 섬, 49쪽)

부자유자의 경우는 「세끼모도(籍元)」로 불리는 사람이 붙습니다. 세끼모도는 부자유자가 병실에 입실하거나 사망했을 때 모든 치다꺼리를 맡아서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자유자마다 한 사람씩 세끼모도가 붙는데 대개는 경증자들입니다. (외딴 섬, 46쪽)

한편 경증자들은 바깥에 나가 숲을 구워서 운반하고 부두에 나가 하역작업을 하는 등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중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 동포들은 빼어난 체력으로, 제각기 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부지런히 일을 해 냈다. 그래서 일본인 환우들은 크게 고마워했고 또한 신뢰하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외딴 섬, 20쪽)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요양소 한센인들은 요양소에서 거동 불편을 기준으로 경증료, 부자유료 환자로 나뉜다. 요양소에는 신체 이외에 한센인들을 평가하거나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신체 기준에 의해 나뉜 그들 중 경증자에게는 특별간호와 노역의 임무가 주어졌다. 의료진 외에는 거의 접근이 제한된 나환자요양소에서 대부분의 일을 그들 내부에서 처리해야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 요양소에 있는 2등 국민, 3등 인간에게 국가가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이미 입소 때부터 그들의 운명은 정해졌다. 경증자는 중증자로, 중증자는 생의 끝으로 가는 시간을 기다라는 공간에서 호조상에는 결국 주체가 죽음으로 가기 전 타인의 죽음의 길에 동참하고, 또 다른 타인이 주체의 죽음 뒤를 이을 것이라는 인과론을 성립시켰다. 살기 위해 간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타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돕는 아이러니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호조(互助)는 처음부터 양방향적 상호 호혜의 원칙이 아닌 일방향적 봉사였고 궁

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자에 의해 환자를 간호하고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한센인 요양소는 그런 점에서 병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병이 진행되는 동안 감염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소진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호조상에 정신은 한센인 요양소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이면에 사회복귀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한센인 동원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죽음을 돌볼 의무가 그들에게 왜 부여된 것인가? 그들 자신의 죽음을 돌볼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타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점점 도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한센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도해줄 누군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에 점차 가까워져 간다. 그것이 ‘특별간호제도’라는 의무감을 가지게 했다.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중증자 간호와 노역은 조선인, 일본인을 가리지 않았다. 국적을 불문하고 요양소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구분이었다. 그 외의 판단기준이 개입되는 순간 호조상애가 아닌 각자 도생의 집단으로 변모해 요양소는 부자유자부터 방치되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잔인한 야생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병 치료를 유일한 목적으로 요양원에 들어왔었다. 그런데도 호조상애의 구호아래 시설운영 작업에 강요된 끝에 다시는 사회복귀를 바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물론 조국의 산하를 다시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외판 섬, 187쪽)

입원자 전원이 호조상애라는 미명 아래 마냥 혹사당하고 있던 점이다. 말 그 자체는 겉으로는 미상불 훌륭하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도무지 요양원답지 못한 면이 많았다.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내가 써 나가려고 하는 「특별간호제도」이다. 비교적 경증인 환자에게는 죽음을 눈앞에 둔 중환자를 돌봐야만 되는 의무가 지워져 있다. (외판 섬, 188쪽)

이윽고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요양원도 그 회오리에 휩싸였습니다. (...중략...) 그 무렵 우리 요양원 환자들은 호박, 감자, 고구마 따위를 심어서 먹어가며 도로공사에 끌려 나가고 야산을 개간하는가 하면

송근(송근·일제는 군용연료의 부족으로, 소나무 뿌리를 乾溜하여 송근유를 짜냈었다.) 파내기 등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도록 계속되는 이 격심한 노동에는 한국인이고 일본인이고 가리지 않고 동원되었습니다. (외판 섬, 15쪽)

문제는 호조상애가 끊임없이 대물림하듯 호조상애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경증환자들은 중증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고, 노역에 동원되면서 부상이나 과로로 결국 중증료의 환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외면하면 자신도 외면당하는, 외면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역설에 요양소 한센인들은 호조상애의 의무를 짊어지고 자신의 삶을 오롯이 요양소에 의탁한 인간이 되어 갔다.

표면적으로는 요양소의 삶에서 조선인이라는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센인들의 실제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수기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이었던 조선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내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입원 후, 5년 남짓한 동안은 그나마 경증료에 적을 둘 만큼은 건강했으므로 안 듣는 대신 「조센징(朝鮮人)」이라고 멸시를 해도, 그들은 우리를 맞대 놓고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시비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외판 섬, 126쪽)

「조센징 주체에 건방지게」 「조센징은 조센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K가 내어 뱉는 소릴 들었을 때, 나는 그때까지 가슴에 응어리졌던 덩어리를 단숨에 배알아 내듯 그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사흘 뒤, 나는 원장의 징계권 행사로 차가운 정양실(靜養室)에서 근신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K는 시말서 한 장으로 더는 문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달려들었던 것은 나였으니 할 말은 없었으나, 냉기가 심한 정양실(사실상 감방이나 다름 바가 없는 듯하다. 譯註)에서의 한 달 동안은 신경통을 앓는 몸엔 치명적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 있던 시력은 정양실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고 수술이 의한 회복 가능성까지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외판 섬, 131쪽)

한센인 요양소에서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나 차별은 표면적으로

는 노골화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요양원의 운영에 경증자의 호조상에 수행이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경증자의 중증료 보조 업무와 노역은 요양소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였으므로 조선인 입소자들을 차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일본인의 의식 속에 녹아있는 조선인 차별과 탄압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은연중에 드러나는 이런 배제의식은 특정한 계기가 마련되면 표면화되어 실제 차별의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평소에는 중증료에서 근무하는 경증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일본인 환자들의 태도는 중립을 유지한다. 하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감추어져 있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자 다툼의 당사자인 일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조선인만 정양실(독방)에 감금되어 시력까지 잃게 되었다. 즉, 일제 요양소는 조선인 경증 입소자를 요양소 운영의 동력으로 인정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조선인 환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즉각적으로 표면화되어 호조상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재일조선인 한센인병 환자들에게 호조상에는 차별받지 않을 수 있었던 무기이자 방패였다. 호조상대로 인해서 중증료와 노역을 하면서 작업사례금 등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이는 요양소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일본인과의 갈등이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장해제가 되었고 온 몸으로 날아오는 칼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것이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의 운명이라 할 수 있다.

4. 아픈 신체와 ‘제3국’ 민의 발견

프로민의 출현이 이 노선을 완전히 지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원~경

중료~퇴원은 이제 노상 꿈만은 아닌,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설령 퇴원까지는 못 간다 해도 평생을 경증료에서 보낼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이곳 요양소를 지탱해 온 윤리며 상부상조의 전통이 이 신약의 출현으로 깡그리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판섬, 50쪽)

호조상애는 1950년대 프로민 주사제의 보급으로 위태롭게 되었다. 요양소 유지의 근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한센인의 치료불가능성에 있었다. 그런데 프로민 주사제는 치료불가능성을 무력화시켰다. 즉, 한센병 완치와 통제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프로민 치료 이후의 중증료에 있던 환자의 처지 변화이다. 프로민은 한센병을 완치시키거나 균의 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중증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제이다. 중증료에 있는 환자나 신체적 결손이 있는 환자들의 상태 악화는 막을 수 있지만 이전으로 회복은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환자들은 치료 후 사회복귀(퇴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했지만 중증료에 있는 환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돌봐줄 경증 환자들을 찾기 어려웠다. 이처럼 한센인의 해방을 부른 프로민 주사제가 기존 한센인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화살이 되기도 했다.

조선인 환자의 요양소 삶도 프로민 주사제와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 역시 완치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이 오히려 ‘제3국’ 민임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는 반전이 발생했다. 한센병 완치자가 나오면서 더 이상 경증자들이 감염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중증료에서 환자 수발을 하는 호조상애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중증자들을 돌볼 새로운 여건과 제도가 필요해졌으며, 유명무실화된 호조상애를 대신할 전문간호제가 시행되었다. 그래서 일본 국민연금법에 따라 신체장애자에 대한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재일조선인 환자들은 이 법이 규정하는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이 지닌 아픈 신체의 기원을 찾아보자. 그들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강제 동원, 강제 참전 등 제국주의 일본의 희생 강요로 일본으로 건너간 존재들이다. 물론 발병 원인을 무조건 일본에 전가할 수는 없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인이 받은 핍박과 열악한 환경이 병이 신체에 물드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충분히 유추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제3국민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아픈 신체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이러한 상처받은 신체의 근원에 대해 일본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일장기 게양대 아래 전원이 줄을 짓고 서서 전투모에다 게트르(脚絆) 차림으로 팽이와 삽을 어깨에 메고 대열을 겨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가락을 떼고 「애국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외판 섬, 31쪽)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어 부모형제와 생나무 빠개듯 찢기위 북해도 탄광으로 징용공(徵用工)으로 보내졌었다. 거기서 그는 무진 고생을 했다. 일본의 패전으로 탄광에서 풀려났을 때는 오랜 과로가 빌미가 되어 나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외판 섬, 169쪽)

전쟁(태평양절전. 譯註) 중엔 특하면 멸사봉공하라는 등 일억일십 총궐기하라는 등 짓조르고 채근하는 통에 우리는 그 말에 따라 정녕코 신명(身命)을 다 바쳐 일을 했고 그 결과로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져 버린 환자가 많았습니다. (...중략...) 이제 와서 웅졸하게도 국적을 따지고 탄소리를 하는 관계당국의 처사는 너무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외판 섬, 39쪽)

1910년, 이른 바 한일합방 후, 1945년 8월, 일본의 제2차 대전 패전까지 우리의 내면적 고뇌는 접어두고도 우리는 노상 술한 차별적 대우는 받아왔으나 「일본인」으로 인정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쟁이 터지자 병역의무까지 지워져 술한 우리 동포들은 남쪽의 바다며 섬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또한 이곳 한센병요양소에 수용이 된 자들도 일본의 전쟁정책에 따라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왔던 경우가 태반을 차지한다. (외판 섬, 85-86쪽)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충분히 식민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토로한다. 그들은 “일본제국주의의 1급 희생자”로서 끊임없는 조선인 차별 속에서 ‘제3국’ 민으로 배제되어버린 현실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제 징용공으로 일하고, 일본인과 같이 애국행진곡을 부르고, 전쟁에 참전하는 등 그들은 일본 국민이 지니는 의무를 수행했지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고통받는 신체가 되어 격리된 상황에 놓였다. 그들이 식민지인으로 일본 국민의 의무를 강제당해 고통받아야 했던 과거와 국민연금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자 하는 그들의 꿈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에게 국민에 준하는 권리 부여를 거부했다. ‘국민’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일본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닌 ‘비국민’은 당연히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조선인 환자들은 힘을 모아 생활수기집을 냈다. 일본에서 발행하면서 ‘재일한국인’이라는 용어를 통해 뿌리의식을 그대로 담아 출간한 이 책은 단순한 수기집이 아니었다. 일본의 차별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한반도 사람들을 억압했던 일제의 만행과 폭압을 기록한 것이다. 일본의 ‘국민/비국민’ 이분법은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존재 인식을 자극하여 한국인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생활수기집의 발간은 일본인으로서의 편입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즉, ‘제3국’ 민으로 만들어 조선인 한센병 환자 문제를 소거시키고자 했던 일본 정부는 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센인 요양소에 입소했던 일본인, 조선인, 그 외 국적 환자들은 그동안 각자의 국적이 큰 의미가 없는 공간에서 삶을 살아왔다. 어떤 국적이든 간에 그들은 한센인으로서 배제와 격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요양소의 윤택한 삶이 그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국민이라는 잣대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아닌 존재는 아무리 증증료에서 환자들의

수발을 들고 노역에 뛰어들어도 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연금 비대상자들의 도태를 야기한다.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아픈 신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제3국’ 민임을 스스로 각인하게 되었다.

5. 나오며

한국인호조회 총회에서 『고도(孤島)』에 이어서 우리의 생활기록집 제2집을 발간하기로 결정을 보다. 작년 여름 『고도』가 출판되면서부터 회원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 같다. (…중략…) 나아가 『고도』는 한국인 요양자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어 왔던 조국상실감을 바로잡는 데도 큰 구실을 했던 것 같다. 『고도』를 통해서 사회와 유대를 갖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하겠다. (…중략…) 이제 제일대한민국 거류민단을 비롯, 대한기독교 교회 등의 원조로써 태어날 제2의 생활기록집이 출판될 무렵엔, 우리 한국인호조회는 더욱 보람찬 비약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외딴 섬, 210쪽)

본 논문에서는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이 생활수기를 모은 『외딴 섬』을 중심으로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처지, 차별과 배제, 제3국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외딴 섬』의 발간은 1959년 일본정부가 제정한 「국민연금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증장애를 가진 일본 국적의 한센인들은 연금 대상자가 되었지만 그 외 외국인들은 제외되었다. 수십 년간 한센병 요양소에서 호조상에 정신 아래 표면적으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존재했던 입소자들에게 국민연금법의 제정은 외부 세계의 차별을 요양소 내로 끌고 들어와 표면화시킨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즉, 국민연금법은 배제당했던 이들의 이중 배제를 통해서 ‘제3국’ 민임을 확인시키는 잔인한 목적을 품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외딴 섬』이 발간된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룬 제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는 일본에 한센인 요양

소에 수용되었던 한반도에 뿌리를 둔 한센병 환자를 의미한다. ‘조선인’은 주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 이후 조국이 분단된 현실에서 남한과 북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지칭한다. 한센인의 경우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가서 한센병이 발병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 논문의 필자는 ‘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외딴 섬』의 발간에 민단과 한국 내 기독교 단체 등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인 호조회의 성향 또한 한국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매체는 한반도 남·북의 대리전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국민연금법에 대항해서 일본정부를 향한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활수기는 단순히 생활의 기록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전략이 녹아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센병 요양소의 대표적인 운영 방식 중 호조상애가 지닌 의미와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호조상애는 격리를 중심으로 했던 한센병의 특성상 외부의 도움 없이 요양소 내부 인력으로 요양소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경증자가 중증환자를 돌보고 노역을 수행하는 등 신체부자유 환자의 손발이 되어주는 이 정신은 요양소 유지의 근간이 되었다. 이 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국적, 경제력, 교육 정도에 의한 차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프로민주사의 영향으로 한센병이 관리가능해지면서 이와 같은 요양소의 전통은 붕괴되어 갔다. 중증자의 거동 불편은 그대로 지속되었지만 경증자는 완치 후 퇴원을 했기 때문에 호조상애 정신은 쇠퇴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에서 한센병이 완치 또는 관리 가능함에 따라 중증자에 대한 새로운 간호와 지원 체계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전문간호제이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 법은 요양소에서 삶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그들은 일본 국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제3국’ 민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은 1950년대부터 일본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3국’ 민으로 낙인찍혀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당사자(재일조선인 한센인)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그들의 발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분석했다. 차후 이를 확장하여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다른 매체도 대상 텍스트에 추가하여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태웅(2021). 전전 일본의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과 국책영화 <작은 섬의 봄>, <일본역사연구> 54, 일본사학회. 181~210쪽.
- 김귀분(2019). 재일한국인 한센병환자·회복자의 인생과 역사: 개인 김하일의 단카 작품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4-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7~50쪽.
- 김재형·오하나(2019).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사회와 역사> 121, 한국사회사학회. 289~331쪽.
- 니시무라 미네타쓰(2019). 한센병문학과 오키나와, <횡단인문학> 4-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51~76쪽.
- 박형준(2021).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49~73쪽.
- 송혜원(2019).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명출판.
- 오현석(2017).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 - 한센병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1~134쪽.

- 이석형·조성규 편역(1986). 외딴 섬-孤島: 재일한국인나환자들의 생활수기. 고려출판사.
- 이지형(2016). 일본 한센병문학의 의의와 현재성-호조 다미오의 『생명의 초야』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25,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75~100쪽.
- 이지형(2017). 우생학, 한센병 그리고 한센병소설-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역서적 신체의 문학표상, <비교일본학> 39,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89~308쪽.
- 이지형(2019). 마이너리티연구에 있어서의 당사자성 문제, <횡단인문학> 4-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77~92쪽.
- 한순미(2014). 한센인의 삶과 역사, 그 증언 (불)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14-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25~157쪽.
- 한순미(2020). “달과 별이 없어도 밝은 밤” : 한센병의 감각과 증언, <구보학보> 26, 구보학회. 475~503쪽.
- 한순미(2020). 비/국민의 차별과 배제-재일한센인의 수기와 한일 요양소 기행,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535~570쪽.
- 川野順(1975). 신정식 역. 형극의 반생기. 삼일각.

필자 소개

성 명 : 오현석
 소 속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우편번호]46241
 전자우편 : ohssek@hanmail.net

투고일: 2022. 2. 20 / 심사일: 2022. 3. 20 / 심사완료일: 2022. 3. 25